

단 보

## 2005년 NCGE 컨퍼런스

이종원\*

### The 90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Jong-Won Lee\*

**요약 :** 미국 지리교육학회인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NCGE)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12일부터 4일간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서 열렸다. NCGE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와 비슷한 목표를 갖는 만큼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 지리교육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지리교육연구와 그 내용 및 방향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컨퍼런스 기간동안 총 203편의 논문, 워크샵, 패널토론, 컴퓨터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대회기간 중 우수한 지리교사 및 학자들과 뛰어난 연구물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미국의 지리교육을 주도하는 학자 및 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NCGE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요어 : NCGE

**Abstract :** The 90th annual meeting of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NCGE) was held in Birmingham, Alabama 12-15 October 2005. Si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Education(KAGEE) and the NCGE have similar goals, analysis of papers presented at the NCGE conference provides an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current issues in US geography education, compared with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In addition to paper presentations, a variety of workshops, panel sessions and computer labs were held during the conference. Distinguished teachers and researchers honored with awards for distinguished teaching, mentoring, excellent media development, and best journal of geography articles at the NCGE award banquet.

Key words :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NCGE)

### I.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이 글의 목적은 미국 지리교육학회인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NCGE)를 소개하고, NCGE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미국 지리교육계의 주요 연구주제 및 동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지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15년 설립된 NCGE는 지리교육의 가치 고양, 교원의 질 향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확대, 지리교육연구 지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관련 연구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NCGE 홈페이지, 2005). 올해로 90돌을 맞은 NCGE는 앨라배마 주 잭슨빌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총 회원 수는 2,500명에 달한다. 한때 회원수가 7,000명에 달했던 적도 있었다(Vining, 1990)<sup>1)</sup>. 회원 구성을 보면, 대학 교수

\* AAG 교육연구원(Ph.D. Education Fellow,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jlee@aag.org

(23%)와 초중등학교 교사(27%)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NCGE 홈페이지, 2005).

NCGE는 미국 지리교육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Journal of Geography*를 년 6회 발행한다. *Journal of Geography*에는 교수전략 및 교수방법과 같은 지리교육 연구물에서부터 일반 지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논문들 또한 발표된다(Bednarz, 2000). 재미있는 사실은 *Journal of Geography*가 NCGE의 공식 학술지이기는 하지만, 최초의 *Journal of Geography*는 NCGE가 생겨난 1915년보다 18년이나 앞선 1897년 1월에 발행되었다. 당시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자연지리를 가르치던 Richard E. Dodge는 *Journal of School Geography*(1902년에 *Journal of Geography*로 이름이 바뀐)라는 이름의 새로운 잡지를 창간하였다.<sup>2)</sup> 당시 Dodge의 나이 28살이었다. 이후 1915년 미네소타 주의 멘케이토(Mankato) 사범대학 지리학과 교수이던 George J. Miller가 주도하여 NCGE를 창설하게 되고, Dodge는 NCGE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Miller는 무려 30년(1920-1949) 동안 *Journal of Geography*의 편집장으로 일하였다(Vining, 1990). NCGE는 *Journal of Geography* 외에도 뉴스레터(*Perspective*)와 다양한 지리교육 서적들을 출판한다.

## II. 2005년 NCGE 컨퍼런스

2005년 NCGE 컨퍼런스는 지난 10월 12일부터 4일간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 위치한 웨라톤호텔에서 열렸다. NCGE 컨퍼런스는 매년 1회 미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개최되고, 지난 3년 동안 컨퍼런스는 필라델피아(2002년), 솔트레이크시티(2003년), 캔자스시티(2004년)에서 열렸다. 그리고 2006년 컨퍼런스는 네바다 주의 레이크타호(Lake Tahoe, Nevada)로 예정되어 있다. 대학교수 및 초중등학교 교사 등 약 550여명이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인권(예, Civil Right Institute, Civil Right Trail)이나 버밍햄의 제철산업(예, Alabamas Iron and Steel Heritage)과 같은 지역성을 반영한 7개의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컨퍼런스 기간 중 24개의 단체는 전시 부스를 설치하여 컨퍼런스 참

가자들에게 자신들의 단체 및 상품을 소개하였다. 부스를 설치한 몇몇 단체를 소개하면, 미국 지리학회인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를 비롯하여, 지도를 출판하고 판매하는 Rand McNally Education, 지리학 관련 전공서적을 많이 출판해온 Prentice Hall, 캘리포니아 주 지리교육연합인 California Geographic Alliance, GIS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ESRI, 지리교육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The Geography Store 등이다.

컨퍼런스 만찬에서는 한해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긴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NCGE 창립자인 George J. Miller를 기리는 George J. Miller Award를 비롯하여, 뛰어난 지리교육 학자 및 교사들에게 수여되는 Distinguished Teaching Achievement Award, 뛰어난 미디어 제품에 부여되는 Geography Excellence in Media Awards, 지난 1년 간 *Journal of Geography*에 출판된 논문들 대상으로 한 최우수 논문상(Best Content Article), 그리고 최우수 박사 학위 논문상(Dissertation Award) 등이 있다. NCGE 최고 영예인 올해의 George J. Miller Award는 Texas A&M 대학의 Sarah W. Bednarz 교수에게 돌아갔다.

컨퍼런스 기간동안 총 203편의 논문, 워크샵, 패널토론, 컴퓨터 실습이 진행되었다. 아래의 표 1은 발표된 논문(포스트 발표 포함), 워크샵, 패널토론, 컴퓨터 실습 등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NCGE, 2005). 통상적으로 학술논문이나 저서들이 심사를 거쳐 출판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참가자들의 발표를 듣고 발표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해당 학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안들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NCGE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와 비슷한 목표를 갖는 만큼 아래 제시된 표는 미국 지리교육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지리교육연구와 그 내용 및 방향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10~15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며, 논문발표의 경우 50분 동안 2~3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지난 2005년 NCGE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 워크샵, 패널토론, 컴퓨터 실습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예전에 비해 워크샵의 수가 많이 늘었다. 20분 정도로 제한된 논문발표에 비해 50분 동안 한 가지 주

표 1. NCGE 컨퍼런스 기간 발표된 논문, 워크샵, 패널토론, 컴퓨터 실습 분석

	논문/포스트 발표	워크샵	패널토론	컴퓨터 실습	계
지역지리	13	25			38(19%)
교수법 및 지리수업 아이디어	5	28			33(16%)
지리수업에서 GIS의 활용	6	5		5	16( 8%)
인권(Civil Right)	15	1			16( 8%)
인터넷/멀티미디어 활용	8	6			14( 7%)
멘토링(Mentoring)		8	1		9( 4%)
지리적 사고와 읽기, 쓰기, 수학 성취도의 관계	3	5	1		9( 4%)
계통지리	3	5			8( 4%)
지도 및 사진 활용	1	6			7( 3%)
AP Human Geography	2	4			6( 3%)
답사와 지리교육	3	1			4( 2%)
지리적 사고, 공간인지, 공간능력	2	2			4( 2%)
인지지도	3	1			4( 2%)
학부 지리수업		3	1		4( 2%)
교육평가		3	1		4( 2%)
교사교육	2	1			3( 2%)
지리교과서	2				2( 1%)
역사와 연계한 지리교육		2			2( 1%)
기타	4	16			20(10%)
계	72(35%)	122(60%)	4(2%)	5(3%)	203(100%)

제를 심도 깊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 참석자들에게 발표와 관련된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증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발표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일반적인 학술발표와 달리 자신의 고유한 수업방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 발표자에게 워크샵은 효과적인 발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워크샵과는 달리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지리와 교수법 및 수업 아이디어 분야에 많은 발표가 있었다. 특히 많은 수의 지역지리 발표가 수업 아이디어와 관련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발표의 1/3 정도가 실제 수업시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교환하는데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발표 중에는 표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수업의 효과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 수업기간 중 교사(발표자)가 겪은 일화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셋째, 지역지리 분야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그 대상

지역이 중국(9편), 일본(3편), 그리고 중동(7편)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은 동아시아(East Asia)에 한번 짧게 소개된 경우가 전부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과 이라크 전쟁이후 높아진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NCGE 컨퍼런스에 미국의 많은 선도적인 지리교사들이 참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지리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수업시간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지리 워크시트 같은 것을 보급하는 것이 한국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넷째, 지리적 사고(Geographical Thinking), 공간인지(Spatial Cognition), 공간능력(Spatial Ability)과 관련된 4편의 발표가 눈에 띈다. 대부분의 경우 GIS 및 멀티미디어의 활용과 관련된 공간적, 지리적 사고를 다루고 있으며(예, GIS for Spatial Thinking about History, Spatial Thinking and Multimedia Design, Advancing Geospatial Skills in Science and Social Studies),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최근 미국

에서 일어나고 있는 GIS 및 Geospatial Technology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 노동부는 Geospatial Technology가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 및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 취업분야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으며(Gewin 2004), 2005년 말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서 출판하기로 예정된 *Learning to Think Spatially: GIS as a Support System in the K-12 Curriculum*은 출판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다섯째, 지리수업(혹은 공간적 사고능력)과 읽기, 쓰기 및 수학 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증가하였다(예, Promoting Geographic Literacy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GeoLiteracy's Impact on Elementary Reading, Study Native America Culture with Geography and Math). 이러한 연구의 증가는 부시 행정부의 교육 슬로건인 No Child Left Behind 이후, 읽기, 수학, 과학 등 주 평가(State Assessment)에 포함된 과목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거의 독점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권(Civil Right)과 관련된 발표가 많은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컨퍼런스가 진행된 장소와 관련이 깊다. 이 지역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흑인인권 운동을 펼치며 주정부에 대해 수많은 데모를 이끌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버밍햄에 위치한 버밍햄 인권 박물관(Birmingham Civil Right Institute)은 역사적 명소이기도 하다. 과거의 인권관련 사건들뿐 아니라 현재의 인권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도 소개되었다(예, The Geography of Opposition to the Patriot Act, Globalization and Discrimination in Japan, Human Rights and the New European Union Constitution).

이외에도 ESRI에서 지원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GIS) 실습이 있었다. 컴퓨터 실습의 경우 유료(만원 정도)로 진행되며, 한번에 20명이 컴퓨터가 마련된 실습실에서 ArcGIS나 ArcView를 배운다. ESRI 중등학교 교육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이들 실습은 Mapping US History, Community Atlas Project, Mapping Our World: GIS Lessons using ArcView 9 등의 제목으로 각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멘토링(Mentoring) 세션의 대부분은 지리학 및 지리교육 분

야에서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해온 학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대표 연구를 청취하고, 지리교육 관련 조언을 듣는 자리이다. 이는 종종 발표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외에도 갖 박사학위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예, Mentoring Early Career Geographe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도 있었다.

### III. 맺음말

올해로 90회를 맞은 NCGE 컨퍼런스가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서 5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4년간 3번의 NCGE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변화하는 미국 지리교육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리교육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NCGE가 국제협력 및 교육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지리교육과는 그 어떠한 공식적인 연대나 접촉이 없었다. 한국의 대학학기 중 따로 시간을 내고, 또 비싼 항공료를 지불할 만큼 NCGE 컨퍼런스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미국의 지리교육을 주도하는 학자 및 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NCGE는 좋은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NCGE라는 장에서 현재의 직장인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를 대표하고, 또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회원으로써 NCGE와의 협력관계를 쌓는데 노력하고 싶다. 이 짧은 글을 통해 NCGE 및 NCGE 컨퍼런스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주

- 1) 1969년 총 회원수가 7,000명에 도달한 이후,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4년에 2,861명이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급격한 회원수 감소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NCGE가 회원수 증가의 주 대상이었던 초중등학교 지리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증가하는 회비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 당시 지리교사의 경우 대부분 지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지리가 수업시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지리관련 단체의 멤버십을 포기했을 것이라 설명이다(Vining, 1990).
- 2) Richard E. Dodge가 *Journal of School Geography*를

창간하는데 William Morris Davis의 지원 및 격려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Richard E. Dodge는 과거 William Morris Davis의 학생이었으며, William Morris Davis는 1920년까지 이 학술지의 부편집인으로 일했다(Vining, 1990).

- 3) 특히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세계지리 교육의 경우 (1) 수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사 개인에게 있고, (2) 자신(교사)들의 경험 및 지식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친숙한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 (3) 동아시아(East Asia)를 가르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중요성이 커 보이는 중국 및 일본을 소개하는데 그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외국 지리교과서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같은 수동적인 노력에서 벗어나, 미국의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관련 지리수업자료를 개발하여 NCGE 컨퍼런스나 주 지리교육연합(State Geographic Alliance) 대회를 통해 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Bednarz, S. W., 2000, Geography Education Research in the Journal of Geography 1988-1997.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9(2), 128-140.
- Committee on the Support for the Thinking Spatially, (forthcoming). *Learning to Think Spatially: GIS as a Support System in the K-12 Curriculum*. The National Academic Press.
- Gewin, V., 2004, Mapping Opportunities. *Nature*, 427(22), 376-377.
-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2005, 홈페이지 <<http://www.ncge.org>>
-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2005, *Program of the 90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 Vining, J. W., 1990, *The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The First Seventy-Five Years and Beyond*.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Indiana, PA.
- 최초투고일 : 2005. 11. 03.  
최종접수일 : 2005. 11. 18.
- 교신 : Ph.D. Education Fellow,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jlee@aag.org)  
Correspondence : Jong-Won Lee, jlee@aag.org